



## ‘허정무호’ 아르헨티나 꺾 비책 에콰도르전서 찾는다

내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평가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정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남미의 ‘북병’ 에콰도르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 격과 해법 찾기에 나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6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이 오는 22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허정무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 월드컵 예비 엔트리 30명 중 최종 23명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 파울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허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

허정무 감독은 에콰도르와 경기 직후 부상자 발생을 고려해 원정길에 오를 25~26명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채울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에콰도르를 꺾고 자신감을 충전한다면

한 달여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태극전사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4년 전 독일 월드컵 때 16강에 올랐던 에콰도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6위로 한국(47위)보다 11계단이나 높은 만만찮은 상대다.

남아공 월드컵 남미예선에서는 6승5무7패(승점 23)로 6위로 밀려 아깝게 본선 출전권을 놓쳤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서 원정 1-1 무승부에 이어 홈 2-0 승리 등 1승1무를 올렸을 만큼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에콰도르는 박지성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안토니오 발렌시아 등 해외파들이 빠진 가운데 국내파들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공격수 이근호(이와타)와 안정환(다렌 스텐)이 리그 일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해 지난 12일 에틀레이드(호주)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

스리그 16강 원정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이동국(전북)이 선발 출격한다. 이동국의 투톱 파트너는 부상을 탈고 날카로운 슈팅력을 보여주는 ‘원발 달인’ 염기훈(수원)이 1순위 후보이고 이승렬(FC서울)이 뒤를 받친다.

미드필더진은 박지성-이청용이 좌우 날개를 맡고 중앙에선 기성용과 감기 몸살에서 회복된 김정우(광주상무)가 호흡을 맞춘다.

‘원발 마법사’ 김보경(오이타), 김치우(서울)와 김재성(포항)은 좌우 측면 미드필더 후보이고 구자철(제주)과 조원희(수원)·신형민(포항)은 기성용-김정우 듀오의 백업으로 활약한다. 러시아 무대에서 뛰는 김남일(볼 토크스)은 17일 귀국한다.

수비진은 국내파와 J-리거로 짜일 공산이 크다. 왼쪽 풀백 주전인 이영표(알 힐랄)는 15일 귀국해 시차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오른쪽 풀백 차두리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골키퍼 장갑은 변함없이 주전 수문장 이문재(수원)가 낀다. /연합뉴스

### 이지영 공동 2위

LPGA 벨 마이크로클래식

이지영(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벨 마이크로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14억6000만원) 1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지영은 14일(한국시각)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파72·664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와 이글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세계 랭킹 1위 수성을 노리는 신지애(22·미래에셋)는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과 함께 공동 22위로 첫날을 마쳤다. 위성미(21·나이지키골프)는 이븐파 72타로 공동 55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서희경 홀 퍼팅

서희경(24·하이트)이 14일 경주 디아너스 골프장에서 열린 태영배 제2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7번 홀에서 퍼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월드컵 대표 저산소실 훈련효과 없다”

고지대 체육 권위자 선우섭 교수 제기

고지대 체육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선우섭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교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산소실의 효과에 의문을 드러냈다.

선우 교수는 14일 “오랫동안 고지대 훈련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표팀이 훈련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NFC 휴게실의 산소량을 줄이고 선수들이 매일 한 시간씩 그 안에서

쉬도록 하고 있다.

선우 교수는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는 한 두 시간을 그렇게 노출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산소방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1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 전부를 거기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게실의 집기를 모두 빼고 제자리 자전거를 설치해 하루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신체가 실제로 적응하는 데) 서너 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제 55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심사위원〉  
서영화(조선대 교수)  
이주영(목포대 교수)  
신수경(전남대 교수)  
허정화(순천대 교수)  
조성경(남부대 교수)

#### 피아노 초등 5·6학년

- ▲ 최고상  
66 김 선(군산지곡6)
- ▲ 금상  
24 이신화(광주학운5)  
55 김승희(여도5)  
58 장혜영(용주5)  
68 하이산(산월5)  
85 류정인(태봉6)  
109 김성은(월봉6)

#### 피아노 초등 1·2학년

- ▲ 최고상  
46 임윤서(봉산2)
- ▲ 금상  
55 윤장현(경양2)  
59 김예원(봉산2)  
87 노민경(목포항도2)
- ▲ 은상  
14 민윤희(봉산2)  
15 이원호(서일2)  
18 박승연(광주교대광주부설2)  
21 나민지(봉산2)  
23 이은주(용주2)  
39 황지은(봉산2)  
54 임다래(일곡2)  
57 윤주영(고실2)  
65 박보연(곡성중앙2)
- ▲ 동상  
1 박하영(본촌2)  
13 김민수(신암2)  
19 김세민(신암2)  
20 조승희(송정2)  
22 윤지현(만호2)  
24 조은서(송정2)  
26 소형빈(신창2)  
28 나민서(봉산2)  
35 정연지(봉산2)  
45 김현성(일신2)  
50 최하영(일곡2)  
52 장예은(태봉2)  
56 최동우(월봉2)  
58 나인혜(목포예향2)  
66 김지웅(운남2)  
73 김예진(독천1)

- ▲ 은상  
18 김차영(곡성중앙5)  
25 이하영(선창6)  
33 이은재(광주서5)  
38 오수빈(나주5)  
39 윤성훈(만호6)  
54 윤세민(도원5)  
74 김정우(태봉5)  
83 이다빈(군산지곡6)  
84 이도윤(녹동6)
- ▲ 동상  
2 정수민(수완5)  
3 한광선(담양남5)  
8 이수진(여수문수5)  
13 김예지(화개6)  
14 장선아(봉산5)  
16 이승연(대자6)  
17 김하민(정암6)  
41 박현진(광양용강6)  
47 박지형(만호5)  
48 배도희(용주6)  
56 신아연(여수중앙6)  
57 최희연(광주교대광주부설6)  
60 이오주(목포석현5)  
63 장다은(만호6)  
75 박민지(문화5)  
79 이다연(녹동5)  
102 김요섭(화순만연6)  
104 조명섭(영광5)  
106 이유미(신창5)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 사진 2매를 5월 22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 프로야구인 모임 ‘일구회’

#### 인터넷 게임업체 訴 제기

프로야구인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이재환)는 최근 인터넷 야구 게임 ‘슬러거’ 운영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구회는 “온라인 야구게임이 우리 회원의 성명권 등을 무단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 사전협의 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협의에 불응실한 자세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 추억의 낭만 콘서트

**나**  
이문세

**최현식**  
최현식

**김희화**  
김희화

**박정우**  
박정우

**한진희**  
한진희

**김정호**  
김정호

일시: 2010.6.13 ~ 15, 19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376-4466